

안심하고 마시는 생명수 맑은 물 흐르는 생태하천

시는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의 공급과 공업용수,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지하수, 온천수 등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향상된 시민생활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아산신도시1단계 상수도시설사업, 용화배수지 확장사업, 선장면 지방상수도사업, 마을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마을하수종말처리장 신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풀 수 있다.

아산시는 200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72.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금년까지 총 350억원을 투입하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시행되며 2016년까지는 물부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50만 도시규모의 상수도 시설과 수도권 상수원 확보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비 25억원을 산정하였으며 아산시민 전체가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이 지난 5월 9일 강회복 아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사업이 완료되면서 영인의 아산, 벌선, 신분, 백석포, 와우, 구성, 장봉리 등과 인주의 공세, 모원, 신성, 경례, 밀두, 문

방, 대을, 금성, 해암1,2, 도통, 관암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물부족 현상 해결이 확실히 이뤄지고 맑은 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북부지구에 입주한 공장과 기업체에 용수공급으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도 시설은 시민의 휴식시설과 함께

특히 인주배수지는 5.572㎢'부지를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장, 링티코드, 산책로, 파고다 등을 설치하여 시민휴식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수질불량과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치읍과 읍봉면, 문포면 102개리 12천여세대 37천여명의 주민들과 약 300여기업체에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2차사업이 115억 원을 투입하여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완공단계에 있다.

이외 함께 선장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남동과 풍기동지역에 총 25억원을 투입하는 상수도 공급시설, 탕정 호산리 주변에 제2단계 상수도 공급시설이 시행된다.

시설분담금 면제범위 확대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는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하여 상수도 지선관로매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광역상수도 급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광역상수도 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금년 5월 조례를 개정, 시설분담금 면제 범위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서 농어촌지역주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21만현락 지원해줌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동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용화동 용화배수지가 확장된다. 시는 현재 개발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에는 급수인구가 5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비 6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110억 원을 투입 급수능력 확충에 나섰다.

시는 농 지역 9만 7519명의 인구 중 93%인 9만 893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용화배수지가 현재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말 이후에는 5만 여명이 급수인구가 증가 14만 여명에게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 확장 공사에 나섰다. 용화배수지의 확장사업은 2만 2000㎡ 규모의 용화배수지와 1.6km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며, 2008년 말 까지는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 상반기부터 시내권에 대한 전체 단수를 예방하는 배수관을 블럭화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용화배수지 확장 공사가 나루미교데 25단정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 도심인구 증가에 대비,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60억원을 투입 2006년 9월 1일 착공하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온천천의 물이 맑아지고 생태하천으로 조성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민의 건강 생활을 영위하도록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도총력을 기울여 현재 36,000톤/일 처리능



아산시 내년 국도비 확보 총력!

동·서 고속도로, 국도 21호 확장 등 대부분 SOC시설 확충으로 성장동력 가속

시는 노시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요인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철도·환경·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천문화적 규모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바 새원확보를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하였다.

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도로분야는 국가 시행사업으로 ▲동서고속도로(천안~당진간, 경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개설사업 40억원, ▲국도21호(아산~천안간) 1,000억원, ▲국도34호(문포~성환간) 331억원, ▲국도43호(배방~음봉간) 400억원 등 12건 2,907억원이 소요되며, ▲수도권전철의 2008년 천안~운양운천간 개통을 위한 시설비 359억원, ▲과거천 하천정비 80억원, ▲인주산단(1공구) 해안진입도로 200억원, ▲경찰교육원 신축 300억원 등 총 4,514억

원에 달한다.

또한, 충남도 시행사업으로 ▲지방도 628호(삼거~신동간) 400억원, ▲지방도 624호(은양~음봉간) 7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70호 사업 400억원, ▲지방도 624호(인주~영인간) 13억원 등 6건에 1,030억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453억원, ▲폐방하수종말처리시설 209억원, ▲맹사성 기념관 및 교육관건립 150억원, ▲동정 T/C 폐수종말처리시설 123억원, ▲동지역하수관리 정비 110억원, ▲도시공원조성 사업사업 105억원 등 32

건에 1,816억원과 시역균형개발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공설운동장건립 130억원,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100억원, ▲산림 박물관 건립사업 35억원, ▲온양상설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15억원 등 27건에 908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등 총 규모 8,268억원이라는 천문화적 예산이 필요하다.

강희복 아산시장은 5월 15일 ~ 16일 이틀 동안 각 부서별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상황 보고회를 갖고 각 단위사업별로 확보가능 여부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간부공무원에게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산시의회 의원 현장방문 실시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제113회 임시회를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외 3건을 의결하였으며, 시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

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관내 17개 사업장의 현장방문이 16일 음봉면 동천리의 유기농벼 건조장 및 도정시설 사업지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현장 방문 후 실시된 현장방문 평가회에서

의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 원안가결

3. 아산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 원안가결

4.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결

2. 아산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

【의원 현장방문 모습】



▲ 문화인식극리 이산네그레 네틀리 사업설명 현장



▲ 지방도 502호(안주~영인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 현장

【현장방문 사업지】

소관부서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문화인프라	옹천·옹기체험관 건립	도고 신연피	대지6,260평/건물616평	56억	2008. 2007
도시계획과	탕정 제2산업단지 이주택지 조성사업	탕정 명암리	13,846평		2004-2009
산림과	영인산수목원 건립	영인산내	16만평	60억	2005-2009
공원녹지과	신정호관광단지종합개발	신정호 일원	기로공원 외 5개사업	363억	2006-2009
지역경제과	아산테크노밸리사업지	둔포 운교리 석곡리 일원	903,000평	6,494억	2004-2010
도시계획과	배방중학교 신축	배방 복수리	L=200m/B=20m	25억	2007-2008
건설과	국도40호4차로 확·포장	금지 송곡리~음봉 환남리	L=7.6km	693억	1999-2007
건설과	지방도 628호 확·포장	만주 일우리~영인 아산비	L=2.0km	91억	2004-2008
건설과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장	신창 풍목리~임치 국고리	L=6.6km	987억	2002-2008
건설과	선우대교 설현장	선장 군락리	L=440m	399억	2002-2007
상하수도 사업소	명동거리 보도블록 교체사업	온천동	L=320m/B=7.5m	36.8억	2007.4월-12월
도시계획과	자전거도로연계	온양온천역 광장			
공보체육과	하키전용구장 건립	권곡동	32,480㎡	43억	2007-2008
도시개발과	장항선 1·2공구 노인기쁨공사	방죽동	L=746m	89억	2007년 말
시설경영과	국설우체국 건립	봉기동	지하1, 지상4층 19,283㎡	653억	2005-2008
도시개발과	배방공수자구도시개발	배방 공수리	370,255㎡	420억	2004-2011
농정과	유기농 배 경조장 및 도정시설 설치지원	음봉 동천리	1,355.5㎡	7억	2005-2007년 말

아산시 의정소식지 제2호가 오는 7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전반기 주요의정활동과 주요인건처리현황 및 의정포커스, 하반기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록 될 예정이며,

우리 함께 해요~!. 한과 쓰소리, 단소리 코너는 시민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수렴 및 여러분들의 시와 수필, 칼럼 등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마감일 : 2007년 6월 30일까지

보내실곳 : 팩스 (041-543-0866), e-mail : kkukil@iasan.com

우편접수 : (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청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아산시의회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시 방문단 아산시의회 방문



▲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장(이기원)은 환영사를 통하여 우호교류 협력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타일러시 방문단과 성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산시와 미국 텍사스주의 타일러시가 지난 4월 2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우호교류협력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조인식 체결 전 타일러시 방문단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방문단을 기다리던 의장(이기원)과 인사를 나누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다.

텍사스주의 타일러시장인 조이시버 시장은 운전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양 도시간 친선교류를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회방문 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와 미국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협력 조인식이 체결되었고, 오후에는 아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일러시 방문단과의 만찬이 진행되었다.

만찬장에서 아산시의회 의장(이기원)은『웃갖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타일러시 베

티바우어 위원장은『초대해주시셔 감사하

쁘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이번 우호교류협력 조인식을 통하여 인적, 경제, 문화, 행정은 물론 특히 교육부분의 어학연수분야에 있어서 양도시간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4회 의원회의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7년 5월 7일 오전10시30분에 의장실에서 2007년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2007년 5월14일 ~ 5월 20일까지 개최되는『제110회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현안 문제점과 사업

을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협성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16일~ 5월21일 까지 도고 신언리의 온천 · 용기체험관 건립 사업장 외 16개소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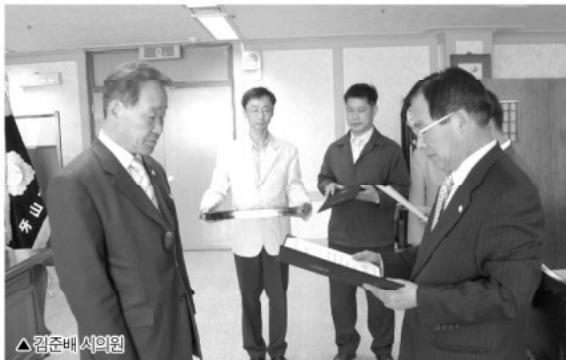


▲ 제4회 의원회의에서 임시회 일정 설명 및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7년 5월 9일 10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준배 시의원과 최경섭 세무사, 남상록 공인회계사가 위촉되었으며 이번 결산감사는 2007년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실시된다.



△ 김준배 시의원



△ 남상록 공인회계사



△ 최경섭 세무사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

임산부건강교실운영, 출산장려사업적극추진, 중년여성 건강검진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추진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 정신보건의 날을 맞아 충남도 정신보건사업 충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보건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2006년 정신보건사업보고회 및 학술세미나와 '우울과 스트레스관리' 불안의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강연회를 개최해 청소년, 직장인등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종성 보건소장은 "앞으로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족화석으로 추천기관연결, 임신부등록관리,

원 편의증진과 괘작한 보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산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육성에 총력 상반기중 친환경농업종합지원센터 완공 계획

시는 최근 한미 FTA 등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총 52억원을 투입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지역 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중이며 아산시 친환경농업의 상장적 공간인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센터를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친환경농산을 유통시설과 유기한우 축사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함께 친환경농업인의 마인드 형성을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7년도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으로 도고면 도신리 일원의 청록영농조합법인(대표 권영장)에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



러 시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을 매년 1개소 이상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면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이 공존하는 지역내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으로서 농업의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면서 친환경농업이 아산시의 특화된 농업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내 관광자원과 연계해 농기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학협력 여성전문취업 프로그램 수료 한국폴리텍IV아산대학 연계, 도배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전개

시가 다양한 평생학습과정의 한 프로그램으로 한국폴리텍IV 아산대학과 연계하여 시민 각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했던 관·학 협력 여성 전문취업프로그램사업의 2개월 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한국폴리텍IV 아산대학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은 수강생을 비롯하여 수강생 가족,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성 전문취업 프로그램사업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업체에서 필요한 여성 취업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산시와 한국폴리텍IV 아산대학이 협력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여성 전문취업 프로그램 개설방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폴리텍IV 아산대학과 관·학 교류협력을 체결한 후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폴리텍IV 아산대학은 지

난 3월 도배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2개월간의 교육일정으로 하루 5시간씩 도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강생들은 그날 배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저녁늦게까지 남아 실습하는 등 배움에 대한 진지한 열의로 22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4일과 8일 이를동안 수강생 22명 전원이 탕정면 갈산리 221번지에 사는 기초수급자 홍성길씨 가정과, 인주면 밀두리 302번지의 독거노인 김선운씨택을 방문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으로 우리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를 해주므로써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수료생들은 26일에 실시되는 도배기능사 자격 시험에 대비하여 실습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지역 업체에 취업하여 일하는 지금 심과 보람을 느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등산로 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 진정한 산사람 이 광 일씨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이 맙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위를 감동시키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 아산시청 산림과에 몸을 담고 등산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광일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광일씨는 평소 산이 좋아 산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산사람이다.

그는 2000년부터 아산시청 산림과와 인연을 맺고 평소에 즐겨 찾던 등산로 정비와 관리업무에 임하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산시의 등산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며 등산로변의 시설물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등산객의 안전하고 예방은 물론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등으로 등산객들의 산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등산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내 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본인이 자비로 GPS장비를 구입하여 관내의 주요 산에 대한 등산로를 GPS측량으로 정확한 산악정보를 파악하고 주변의 관광정보를 확보

하여 제공함으로써 아산시가 「아산의 산」이라는 등산로 안내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 제공으로 아산시는 등산안내책자 10,000부를 제작하여 아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산의 산소개는 물론 아산산행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관내 산이 비교적 해발이 낮고 규모가 작아 장거리산행 등을 선호하는 전문 산아인과 등산계의 이들이 관내 산행을 기피하는데 차단하여 산과 산을 연결하는 종주코스를 개척함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산루내 쓰레기 수거함은 물론 항상 웃을 띤 얼굴로 등산객을 맞이하며 산행을 도와주고 있다.

산을 좋아하고 산과 함께 숨쉬는 진정한 산아인 이광일 씨는 오늘도 아산의 산 어디가에서 빙갑과 등산객을 맞으며 산을 가꾸어가고 있다.

아산시 인구 4년 연속 꾸준한 상승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요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발표하여 인구유인정책을 하는 등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2004년을 정점으로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여 인근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4월말 기준 인구가 지난해 205,321명 대비 11,463명 증가한 216,784명으로 KTX 천

안아산역 개통, 세계 최대의 탕정LCD단지 인 탕정 T/C산업단지,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인구증가의 주요요인이다.

읍면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속도가 가장 빠른 배방면이 5,60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 하였으며, 음양3동이 3,469명, 읍봉면 1,996명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

시개발 주변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입주하면서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입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아산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산시 인구는 큰 폭으로 상승될 것이다.

앞으로 KTX 고속전철의 편리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2008년 수도권전철 아산 연장 개통,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탕정제2

지방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조성, 온양 구도심 정비, 아산만원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인구유발 요인이 꾸준히 이어져 급속한 인구성장이 예상되며 머지않아 50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과 전입세대 환영서한문 발송, 출산장려정책 등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외암민속마을 농촌체험 최우수

2007년도 도농교류페스티벌에서 농림부장관상 수상



농림부와 KBS한국방송의 공동주최로 2007. 5. 3 ~ 5. 6(4일간)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행사에서 송악면 외암리민속마을(외암리녹색농촌체험마을 대표 이규정)이 최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되었다.

이번 페스티벌행사는 70여 유관기관·단체가 농촌체험마을 행사를 참여해 가축 키우기와 전통공예 등 농촌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300여 가지의 체

험행사가 있었다. 외암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민속마을을 되살려놓은 듯 한 초가집을 재현하여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으며 최고의 불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통혼례 재현, 전통공예품 만들기, 떡메기기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체험마을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수상하여 박홍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이규정 외암리민속마을체험마을 대표는 “시의 적극적인 협조·지원과 주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체험마을로 가꾸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온양권 구도심 재정비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아산시는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7. 5. 17(목)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에 온양1동 박종근씨 등 5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위원회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개발방향, 관련 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인 동서울대 고덕균교수를 초빙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사업구역 및 주민들이 온양중심상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감으로써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회는 사업구역내 주민들로부터 평상시 존경을 받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이루어가는 토대를 마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온양은 천초등학교 앞-미곡시장일원의 온양권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 2일 대한주택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2005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지구지정용역을 실시중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월중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한 계획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대 왕실은천으로써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온궁복원도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아산시-타일러시 우호교류 협정 체결

경제, 문화, 시민교류, 교육분야 등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지난 4.26(목) 아산시와 미국 텍사스주의 타일러시가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우호교류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지난해 아산시는 미시간주 랜싱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아산시의 발전과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로 다음달 6월 11일 미시간주립대학교에 VIP과정 연수생 10명이 1차 출국예정으로 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번 조인식 또한 아산시가 타일러시와의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인적, 경제, 문화, 행정, 교육 등 각 분

야에 걸쳐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극 앞장서 나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된다.

그동안 양시는 실무단의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하여 2005년부터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왔다. 5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하여 아산시는 타일러시의 어학여수, 문화축제 교류 등 상호교류에 대해 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금번 아산성공이순신축제 기간에 타일러시 대표단 초청 서한을 발송하였고 이에 답하여 금년 2. 25 타일러시 관계자가 아산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타일러시 관계자는 우호교류협정 조인식이 끝난 후 외암민속마을 및 온양민속박물관을 관람했으며 현충사 참배, 현대자동차 및 삼성LCD 견학, 아산성을 이순신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타일러시는 미국 내 석유생산량의 총35%를 차지하며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지이다. 화훼산업이 발달하여 미국 장미생산의 50%를 차지하며 매년 개최되는 500여 종류의 장미가 전시되는 텍사스장미축제(10월)와 진달래 및 범꽃축제(3~4월)가 유명하다. 또한 타일러 장미공원은 해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 읍·면·동 소식 | 음봉면 주민자치위원 어르신들 등 밀어주며 효 실천



음봉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황규현)는 5. 10(목) 주민 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사랑의 반찬나누기 수혜가구인 46가구를 대상으로 아산온천 대욕장에서 목욕봉사와 육심만원 상당이 선물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하였다.

가정의 달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감

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이르신들은 마음이 푸근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자치위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자가용을 이용해 어른들을 모시고 목욕을 같이하며 등도 밀어드리고 몸소 효를 실천하는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날 아산온천단지 내에 있는 식당 낙원 가든(대표 이병수)은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렸다.

음봉면 주부명예기자 오인희



은바 있었다.

작지만 큰 학교의 힘을 보여준 도고초등학교 사물놀이팀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 지역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래본다.

도고면 주부명예기자 이인자

도고초 사물놀이 팀 아산전통학생예술제 '대상'

동양 4 대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도고온천의 명문 초등학교인 도고초등학교(교장 김명환) 사물놀이 팀이 아산 전통문화 학생예술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삼성전자가 주최한 제2회 아산 전통문화 학생예술제 경연대회에서 그동안 같고 막은 실력을 마음껏 뿐내며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경연 대회는 아산시 관내 업선된 7

개 초등학교가 출전하여 불꽃 뛰는 경쟁을 벌였다.

전교생이 61명인 전형적인 농촌 소학교인 도고초등학교에서 대상을 받기까지는 학생들의 끊임없는 연습과 농사일로 바쁜 중에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한 도고초등학교 학부모 사물놀이 후원회(회장 정금자), 총동창회, 교사 모두의 지원이 있었다.

이날 경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어

린 고사리 같은 손들은 고된 연습으로 모두 물집이 잡혀 있었다.

이날 부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협찬한 32인치 LCD TV를 기증 받았다. 또한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삼성전자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을 한마음씩 받았다.

도고초등학교 사물놀이 팀은 지난 4월 27일 이순신축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해 공연하여 축제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

| 유관기관 소식 |

알면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정보

- 하이패스플러스카드(전자카드) 이용하세요 -

① 하이패스플러스카드 개요

현금, 고속도로카드, 출퇴근 예매권 기능을 통합한 통행료 지불용 충전식 선불전자카드로 기존의 1회용 고속도로카드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현금사용 불편과 교통 지정체를 완화키 위해 사용되며,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나누어 진다.

② 기능통합(현금+고속도로카드+출퇴근예매권+하이패스차로)

- 수도권 개방식 고속도로 TG에서 터치패스식으로 사용
- 전국 폐쇄식 고속도로 TG에서 통행권과 함께 직원에게 제시 통행료 지불(기존 고속도로카드와 동일)
- 수도권 하이패스 차로에서 차량단말기(OBU)에 삽입되어 무정차 통행료 지불 ('07.12 하이패스 차로 전국 확대 시행예정)

③ 할인혜택

-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자동 20% 할인
(차종 1~3종에 한해 출퇴근예매권 적용시간 및 구간)
- 충전금액에 따라 1~3% 할인
(1만원:1%, 2~4만원 2%, 5만원이상 : 3%)

④ 신청방법

- 방 문: 전국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 및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 도로영업팀
- 인터넷: www.hipassplus.co.kr

* 고속도로(주변국도, 기타국도) 교통상황 안내 : 1588-2505
* 문의 :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041-561-0025)

ex

재미로 풀어보는

공명선거퀴즈!



『문』제17대 대통령선거일은 2007년 12월 19일입니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 | | |
|----------|--------------|
| 1. 언제든지 | 2. 선거일 1년전 |
| 3. 항상 허용 | 4. 선거일 180일전 |

◆ 응모요령 : 2007년 6월 20일까지 정답을 우편엽서에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각 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필히 기재)

◆ 보내실 곳 : 우1336-040 아산시 모종동 577-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당첨자발표 : 개별 통지(당첨자 선물 개별 우편 우송)

농식품 안전 안심 서비스 (SafeQ)

1. 내용 : 세일류 서비스는 우리 농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고객이 방문 없이 검정업무를 해결하여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농식품 안전 서비스입니다.

2. 취지 :

- 사전 예방적 안전성 관리
-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인터넷 + 택배 결합 안전성 검정 서비스
- 검정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 부적합 시승 유동 차단을 위한 부적합 정보 공유

3.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 041)547-6080로 문의 바랍니다.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여인의 향기 에 흡뻑

온양민속박물관 “여인의 향기 특별전”

아산시 대표 관광명소인 온양민속박물관(관장 김은경)에서 지난 4. 10부터 6. 10(일)까지 박물관내 특별전시실에서 ‘여인의 향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개회 당시에는 5. 6일(일)까지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호응이 좋아 연장 전시하게 되었다.

‘여인의 향기’ 특별전은 ‘모임방’(대표 충성일, 현현희)에서 암자로 고미술업체에 종사하면서 옛 여인들의 유물에 깊은 애정을 갖고 모아놓은 민속 유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옷 살림의 정취와 향기를 들풀 맡을 수 있다.

온양민속박물관은 지난 2000년에 “실크로드 3,000년” 전 이후 6년만에 특별전시전을 갖는 것으로 박물관으로서도 의미있는 전시회이다.

전시품목은 실·천살립(보자기, 바느질, 자수등), 치례(노리개, 신발, 주머니 등), 집살립(수납가구, 문방제구, 침구, 부엌살립등) 총 1천여점에 달하며 다양한 살림살이를 볼 수 있다.

김관장은 “전시 요청을 받고 수집품을 살펴보니 알찬 수집품이었으며 상업성이 앞장선다는 말을 들을까 우려했지만 우리 문화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하였다.”고 밝혔다.

예술 체험 그리고 놀이...

당림미술관 MUSEUM FESTIVAL

당림미술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 체험 축제를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새롭게 단장한 당림미술관 전시실에서는 당림 이종무(1916~2003) 화백의 미공개작을 중심으로 1950년대 작품부터 작고 작전까지의 작품 44점을 일상화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애외 조각공원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김배현, 전종무의 주옥같은 조각작품들이 전시관 및 애완전시장에 전시된다. 이와 더불어 김배현, 전종무, 박문현, 임덕모 등의 작가와 전문가들은 예술 체험 축제를 열어 만남과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

지역특성상 예술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시 소재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의 폭넓은 이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니 예술의 향기와 빛깔을 접하여 우리네 삶에 풍요로운 채색을 활용해보자.

속대 만드는 시인 맹주상

6월 11일~22까지 아산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

광덕산 끝자락 솟대들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으로 서있다. 시인 맹주상(46, 동시인)씨는 솟대에 자신이 직접 쓴 시를 적고 쓴 이의 마음을 담아 시를 낭독해준다.

솟대는 나루나 둘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힌 마을의 신앙대상들로 지역이나 풍토에 따라 소솟대·표솟대·술대·거릿대·수설목·서남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을의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능을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긴 장대 폭대기의 새는 주로 오리, 거리기, 까마귀, 까치 등을 울려놓았는데 이는 새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현신의 심부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집은 솟대 박물관이다. 400~500여점의 작품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방문자를 대하고 작품을 마주하니 그 속에서 작가의 언어가 쏟아져 나온다. 솟대를 만든 이후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집은 솟대 박물관이다. 400~500여점의 작품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방문자를 대하고 작품을 마주하니 그 속에서 작가의 언어가 쏟아져 나온다. 솟대를

이순신 정신 되새기고 대장정의 막내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동안 국교전 둔치에서 열렸던 제46회 아산성웅 이순신축제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국교전에는 누고 얹혔으며 이루어진 행사장에는 연일 사람들의 밤길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행사를 찾은 50여만 명의 관객들은 어느해 보다 알차게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이순신 장군의 충효정신을 체험하고 기습깊이 긴급 할 수 있었다.

* 백의종군하는 미음으로

이번 축제 들어 가장 많은 인파 4,000여명이 참석한 맥의증군·건강선기내회는 4월 30일 오후 2시 현충사를 출발하여 읍봉면 이총무공 묘소까지 9.4km에 걸쳐 진행됐다.

성웅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처음 실시된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께서 모친 시련을 겪으면서도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신 백의종군 정신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장군께서 물소 실천 하셨던 구국애민의 정신을 체험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개최하였다.

걷기대회 행사는 해군 군악대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이총무공 묘제 시연도 이루 어졌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통해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들에게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대표 프로그램 무과전시

유체꽃이 흐드러진 곡교전 둔치에서는 마무주의 멀발굽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으며 색색은 단단색들로 네일 조판을 이뤘다. 조선시대 무관을 선발하던 무과전시의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에서 더욱 의미가 되살아나는 아산성웅이순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흥년 이순신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역동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시연으로 관람객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 자원봉사자가 있어 더욱더 빛나는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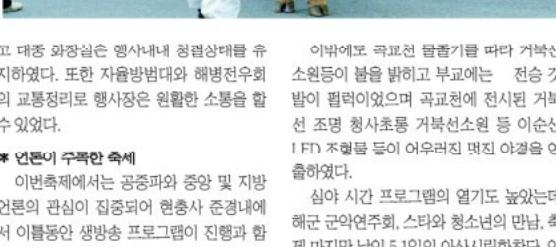
행사장에는 홍보, 통역, 행사진행, 홍경정비, 급수봉사등 자원봉사자들의 바쁜 손길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되었다.



고 대조 왕장길은 앵사내네 청렴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의 교통정리로 행사장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 언론이 주목한 축제

이번축제에서는 공중파와 중앙 및 지방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현충사 준경내에서 이를동안 생방송 프로그램이 진행과 함께 황금시간대 전국적인 생방송 뉴스진행이 이루어지는 등 일간신문, 스포츠신문에 연일 보도되어 축제를 통한 아산시의 홍보효과도 만점이었다.



이밖에도 곡교전 활풀기를 따라 거북신 소원등이 불을 밝히고 부교에는 전승깃발이 펼려이었으며 곡교전에 전시된 거북선 조명 청사초롱 거북선소원 등 이순신 I FD 조형물들이 어우러진 멋진 야경을 연출하였다.

심야 시간 프로그램의 열기도 높았는데 해군 군악연주회, 스타와 청소년의 만남, 축제 마지막 날인 5.1일의 아산시립합창단, 인기 가수 공연 등 축제의 격조를 높이면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쉬움을 달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